

새 책

▶팬데믹 제2국면(우석훈 지음)=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1년, 우리는 지금 백신이 보급되는 '팬데믹 제2국면'을 맞고 있다. 저자는 자동차산업, 해운업, 자영업, 문화예술계, 돌봄과 대학, 프리랜서, 재택근무, 가사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팬데믹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문예출판사. 1만6000원.



▶송일준PD 제주도 한 달 살기(송일준 지음)=저자는 광주MBC 사장을 퇴임하고 며칠 뒤 전격적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단행했다. 매일 여러 군데를 다니며 체험한 것을 매일 밤 혹은 이른 새벽 페이스북에 적었다. 뭘 보고 뭘 먹었는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인문지리에 관해서도 썼다. 어떤 이유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꿈꾸거나, 며칠이라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스타북스. 1만6000원.



▶눈으로 만든 사람(최은미 지음)=책은 크게 여성 인물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소설과 가족 바깥의 인물과 맺는 특별한 관계에 집중하는 소설로 나뉘는 아홉편이 담겼다. 표제작이기도 한 '눈으로 만든 사람'은 이 중 가장 처음 쓰인 것으로, 이후 작가의 소설 세계가 뻗어나갈 여러 갈래의 방향을 가리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문학동네. 1만4800원.



▶분노의 임신일기(양자윤 지음)=뜨거운 모성으로 '말기'는 물론 인류 좀 구할 줄 알았으나 자신의 평화와 안녕이 무엇보다 먼저임을 깨달은 양자씨와 온갖 갖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심각하게 느려터진 '달팽이 영감'의 박장대소 임신 에세이다. 향출판사. 2만원.



▶창비어린이(2021 여름호)=창간 18주년 기념 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를 특집으로 다룬다. 교육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초등교사 및 아동문학평론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시기를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건너는 법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평론 두편은 각각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어린이 인식'과 '청소년 서사'의 가능성을 살핀다. 창비. 1만3800원.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지아다 파베시 지음·이현경 옮김)=누군가의 감추고 싶은 고민과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한 소년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다.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아 씨름 중인 청소년기의 복잡한 마음과 실수, 이를 통한 성장을 담고 있다. 푸른숲주니어. 1만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통일독립 4·3주체들의 꿈 문학으로 쓰다

문학평론가 5인 공저 '김석범×김시중'

4·3의 오늘날 의미 재구성 수난자의 관점과는 다른 결

재일 김석범과 김시중. 제주4·3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은 두 작가는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이전까지 국내 독자들에게 먼 존재였다. 그 실체를 파악하고 읽어낼 수 있는 번역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8년 1부만 우리말로 번역됐던 김석범의 대하 소설 '화산도'가 총 12권으로 완역 출간된 해가 불과 6년 전인 2015년이었다.

다섯 명의 문학평론가가 두 작가의 작품이 더욱 넓고 깊게 읽히길 바라며 김석범·김시중 문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모았다. 고명철·김동윤·김동현·김재용·하상일(가나다순)이 공저한 '김석범×김시중'이다.

'4·3항쟁과 평화적 통일독립'이란 부제를 붙인 이 책에서 저자들은 김석범·김시중의 문학을 4·3의

울타리에만 가둘 순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작가의 문학이 지향하는 지점이 민주적 평화통일독립이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로 예정되어 있던 5·10 남한의 단선을 막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남북의 통일독립을 세우려고 했던 4·3주체들의 꿈이 한반도 내에서는 좌절되었지만 두 작가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일본 땅에서 일본어로 창작하면서 지치지 않고 소설과 시를 발표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재용 평론가는 '4·3과 남북협상의 평화적 통일독립'에서 "4·3에 직접 개입했던 김시중은 '비협박'에 대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김석범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로서의 자의식을 기반으로 이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김시중, 김석범의 문학은 이에 머물지 않고 4·3이 오늘날 갖는 의미 즉 평화적 통일독립의 시각에서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억울하게 죽은 수난자의 관점과는 결을 달리하게 된다"고 했다.

이 글과 함께 '김시중과 김석범-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독립 세상을 향한 제일조선인 문학(고명철)', '통일독립의 열망과 경계인의 의지-김석범의 한글 단편소설 연구(김동윤)',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의 제일조선인 시문학-김시중의 시를 중심으로'(하상일)', '분단의 계보학과 서사의 탄생-김석범의 '화산도'를 중심으로'(김동현)가 실렸다. 김석범과 김시중의 육성으로 전하는 '나의 문학', 작가 연보도 수록했다. 보림. 1만6000원. 진선희기자

말이 곧 그 사람... 체, 척 말고 진정성 있게

강원국의 '... 어른답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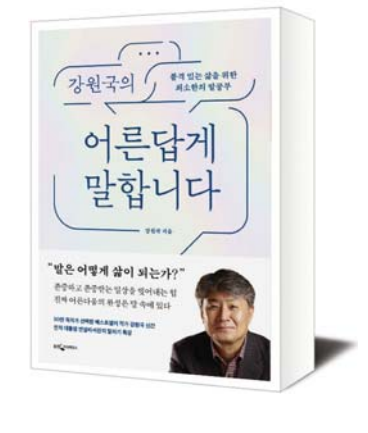
한동안 출근길 라디오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짙막한 분량이었지만 솔직한 그의 경험담에 '아하' 같은 추임새가 더해지며 솔깃해지도록 만드는 방송이었다. 그는 단순히 말재주를 일러주기보다 말이 지닌 힘을 강조하곤 했다.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70여 편을 골라 한 권의 책을 엮었다.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로 '폼퐁'이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공부'란 부제를 달고 나왔다.

라디오의 특성도 있겠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 같은 말'을 들려줬던 터라 단행본으로 묶인 글들도 술술 읽힌다. 독자들을 뜨겁하게 만드는 대목도 적지 않을 듯싶다. 개인적으로도 그랬다.

그는 '진정성의 필요충분조건'

을 말한다. '체'를 하거나 '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이야 한다는 그는 거짓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하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같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충분조건은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말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어야 한다.

'실력 없이 가르치려 들지 마라', '어휘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 '어떤 말은 삼킬 때 오히려 완성된다', '뒷북보다 선공이 낫다' 등 제목만으로도 하고 싶은 말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는 얼굴보다 말이 더 그 사람의 인격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 사람이 누구



인지 알려면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그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자 왕도로 연습과 복습을 꼽았다.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자리는 없다. 모든 일정과 약속이 말의 시험장이다. 그렇기에 연습과 복습은 말공부에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대화나 협상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웅진지식하우스. 1만6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윤봉택 시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바닷길은 한 이젠 어디 가서 달래나

1996년 첫 시집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에서 시인은 '산에 갔던 사람/ 산으로 가던 사람/ 산을 바라보던 사람/ 집에 있던 사람/ 집을 찾아가던 사람/ 집을 찾아와 구름비 바닷길로 가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며 '4·3별곡'을 불렀다. '섬에서도 가장 따뜻하여 유채꽃이/ 먼저 피는 마을'에 다시는 그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길 바랐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21년 만에 펴낸 세 번째 시집에 또다시 등장하는 구름비는 마을에 드러운 절망의 풍경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1991년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시단에 발을 디딘 윤봉택 시인이 2000년대 이래 '서귀포문학' 등에 발표한 시들을 모아 엮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시단에 데뷔한 윤봉택 시인이 21년 만에 신작 시집을 펴냈다.

강정에서 8대의 삶을 지켜온 시인은 공직 말단에 있던 시절 해군기지 홍보와 지역민 회의를 목적으로 팀장직을 제안 받았던 일화를 털어냈다. 이를 긍정적 거절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공직자로서 찬반을 떠나 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힘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시인이지만 시 작업에선 애써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작 등을 통해 참담함을 풀어냈다.

시인은 제주 방언을 시어로 적극 끌어들이며 '가슴 찡원한(분하고 슬픈)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의 신호탄이 된 2012년 3월 구름비 폭과 무렵에 쓰여진 '나 설은 어땠 웃고픈데 물어 중덕과 새별코치가 바라다보이는/ 이염에 기대어/ 지전 드려 바닷길 지른 한을 달래던/ 내 설은 좀네 아내/ 이젠 어디로 돌아 사그네 지 드리민 조울꺼산디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6-개구리비당')라는 구절에선 정신적 위안처였던 지역민들의 성소가 없어진 현실을 노래했다. 강정의 변화는 단순히 동네의 지형이 바뀌고 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는 일이었다. 시인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작에서 해원상생하는 마음을 담아 '강정분향 분풀이'를 읊고 '구름비 서우젓소리'를 부른다. '4·3에도 아니 묶여본 손 묶이고 막히고 경황주마는/ 일어서서 모다덜듬서 서우젓소리로 모다덜듬서'라고. 다층.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uso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